

##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 2025년 10월 29일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중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힘.
    - 지난 7월 30일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큰 틀에서 타결한 바 있음(주간브리프 Vol.29).
  - 상호관세는 7월 합의대로 15%를 지속 적용하며,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됨.
    - (현금투자 2,000억 달러) 연간 투자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함. 이는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지 않게 하여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 협상 결과임.
    -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MASGA])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기업의 투자와 보증 및 선박금융을 포함하여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을 높임.
    - (대미 금융투자 수익 배분)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각각 수익을 5:5로 배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한국이 일정 기간 내에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하였음.
    - (투자금 회수 안전장치)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한국이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할 경우 수익 배분 비율 조정이 가능한 안전장치를 마련함.
- \*상업적 합리성: 투자위원회가 선의(good faith)에 따라 투자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보장된다고 판단된 투자를 의미
- (관세 인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됨. 반도체의 경우,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합의함. 또한, 의약품, 목재 제품 등은 최혜국 대우, 항공기/부품,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 적용
  - (농산물 시장 개방) 쌀·쇠고기 등을 포함하여 농업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은 없으며, 검역 절차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함.
- 이번 협상 타결로 한국산 자동차·조선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담이 최초 부과 수준인 25%보다 완화된 것으로, 일본 및 EU와 동일한 조건이 적용됨에 따라 경쟁국 대비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가 해소됨.

### ■ 미국-한국, EU, 일본 대미 투자 합의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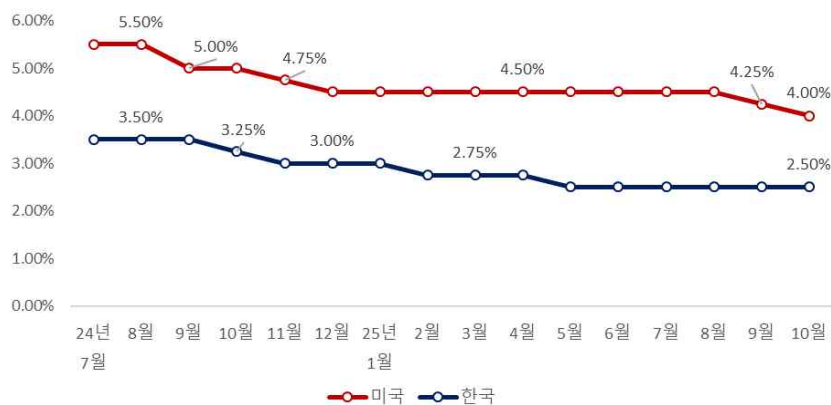
	한국	EU	일본
대미 투자 규모	3,500억 불	6,000억 불	5,500억 불
세부 방식	현금 2,000억 불, 조선업 1,500억 불, 연간 투자 상한액 200억 불	민간기업 투자에 따라 EU에서 금융지원	원전, 에너지 설비 3,320억 불, AI 인프라 750억 불 등
수익배분방식	원리금 상환 전까지 5대5	해당사항 없음	원리금 상환 전까지 5대5
기타 합의	에너지 1,000억 달러 구입	에너지 7,500억 달러 구입	농산물, 에너지, 방산·항공 구입 등

출처: 대통령실('25.10.29); 중앙일보('25.10.29)

## 세계 경제 동향

- 미국, 기준금리 0.25%p 인하 | 2025-10-30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매일경제TV; 2025-10-23 한국은행
  - 2025년 10월 30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현재 기준 금리는 4.00%임.
    - 올해 들어 두 번째 금리 인하 조치로, 고용 둔화와 경기전망의 불확실성 확대를 고려한 조정이라고 설명함.
  - 또한, 12월 1일부로 양적긴축(Quantitative Tightening, QT) 종료를 결정함.
    - 이는 2022년부터 진행된 자산 축소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적으로 전환되는 신호로 해석됨.
  - 이번 결정에는 제롬 파월 의장, 존 윌리엄스 부의장 등 다수 위원이 찬성하였음.
    - 일부 위원은 0.5%p 인하(스티븐 미란) 혹은 금리 동결(제프리 슈미트)을 주장하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이견을 드러냄.
  - 연준은 '최대고용과 물가안정'이라는 이중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향후 경제지표와 금융시장 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정책 방향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힘.
  - 반면, 지난 10월 23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2.50%로 동결하기로 결정함. 이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2% 내외)을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임.
  - 또한,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성장의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갈 것임을 밝힘. 이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차 확대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한국은행에 정책적 여유를 일부 제공했다고 평가됨.

■ 2024년 1월~2025년 10월 한·미 기준금리 추이 ■



## 국내 경제 동향

### ● 2025년 10월 소비자심리지수 전월 대비 0.3p 하락 | 2025-10-28 한국은행

- 2025년 10월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8로, 전월 대비 0.3p 하락하였음.

\*소비자심리지수는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4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을 초과하면 소비자들이 향후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100 미만이면 비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함.

- 향후경기전망CSI는 전월 대비 3p 하락한 94를 기록하며, CCSI 하락에 가장 크게 기여함.
- 소비지출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10으로 전월과 동일함.
  - 교육비(101) 전월 대비 2p 상승, 의료비(99), 외식비(98), 교통·통신비(107), 주거비(105) 각각 1p 상승
  - 나머지 품목은 전월과 동일
- 물가수준전망CSI는 146으로 전월 대비 1p 상승
  -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월 대비 0.1%p 상승
  - 3년 후 및 5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 또한 각각 2.6%로 전월 대비 0.1%p 상승
  - 지난 1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물가 인식)은 3.0%로 전월과 동일
-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농축수산물 (53.8%), 공공요금 (38.7%), 공업제품 (32.2%) 순이었음.
  - 집세(+4.0%p), 석유류(+3.2%p) 등에서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공공요금(-4.7%p), 농축수산물(-4.3%p) 등에서 응답 비중이 감소함.

■ 2024년 10월~2025년 10월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



## 세계 농업·농정 동향

### ○ 일본, 농산어촌 공헌 활동 공식 인증제도 실시 | 2025-10-24 농림수산업성

- 일본 농림수산업성은 2025년 10월부터 기업의 다양한 농산어촌 공헌 활동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함.
    - 공헌 활동에는 금전적 기부, 기술 지원, 인력 파견뿐 아니라 농산물 가공·판매 촉진, 농촌 관광 및 교류 활성화, 환경 보전 활동 등이 포함됨.
    - 농림수산업성이 심사를 거쳐 공헌 활동 실적이 인정되면 증명서를 발급하며, 해당 기업은 이를 대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제도의 목적은 민간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가시화하고, 농산어촌 지역이 민간 자원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음.
    - 농림수산업성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산어촌이 직면한 과제 해결과 기업의 ESG 활동 연계를 목표로 2024년 '농산어촌 임팩트 가시화 가이드' \* 발표
    - 기업은 신뢰성 있는 공헌 활동에 대한 증명이 가능해져 ESG 경영과 연계 가능성이 커지고, 농산어촌은 새로운 협력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음.
- \* 농산어촌 임팩트 가시화 가이드: 기업의 농산어촌 공헌 활동 참여 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효과의 긍정적 측면을 시각화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리한 가이드라인
- 농림수산업성은 이번 제도가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과 지역 간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 일본 '농산어촌 공헌 활동 공식 인증제도' 주요 내용 ■

구분	주요내용
선정 대상	· 농산어촌에서 공헌 활동을 수행했으며 향후 활동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공헌 활동 예시	·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림수산물·식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유지 등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어촌 외부 인재 유입, 농림수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li> <li>- 도로 휴게소 등의 정비를 통한 농산어촌 인프라 유지 외의 활동</li> </ul>

## 국내 농업·농정 동향

- 김장철 대비 배추 공급 안정 및 원산지 관리 강화 ■ 2025-10-23 농림축산식품부 ; 2025-10-26 농림축산식품부 ; 2025-10-2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장철(11~12월)을 앞두고 배추·무·고추·마늘 등 주요 김장 재료 공급 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체로 원활할 전망이라고 발표함.
    - (배추) 생산·공급이 대체로 원활할 것으로 전망되며, 계약재배 물량과 비축분 방출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할 계획임. 다만 일부 지역에서 무름병 발생 사례가 보고되어 면밀한 관리 필요
    - (무) 가을 무의 작황은 대체로 양호하나, 기상 여건에 따라 지역별 편차 발생 가능
    - (고춧가루) 국산 고추 수확량은 평년 수준이나, 건조·가공 원료 확보와 저장 물량 관리가 중요
    - (마늘·생강) 저장분과 수입 조절을 통해 공급 차질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 수입 의존도가 높아 가격 변동성 관리 필요
    - (양념류 전반) 정부 비축·수입 조절 물량을 적기에 방출해 수급 안정 추진
  - 김장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는 계약재배 확대, 수매·비축 물량 방출, 도매시장·대형 수요처 공급 강화 등 대응책을 가동함.
    - 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과 협력하여 생육 모니터링, 병해 관리, 약제·영양제 지원을 병행
    - 현장 점검 결과, 충북 괴산 등 주산지는 전반적으로 생육 상태가 양호하며, 전체 공급에는 큰 차질 없을 것으로 평가됨.
  -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배추김치·절임배추·고춧가루 등 원재료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함.
    - 온·오프라인 유통 매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병행
    - 특히 온라인 판매 증가에 대응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

### ■ 김장철 주요 재료 공급 전망 ■

품목	공급 전망	정부 대응
배추	재배면적 확대, 재고 확보 → 공급 원활	비축물량 활용
무	재배면적 확대, 재고 확보 → 공급 원활	비축물량 활용
양념채소 (고춧가루·양파·대파·생강)	대체로 안정적 공급 전망	별도 조치 없음
마늘	가격 상승세	비축물량 방출
쪽파	작황 부진으로 강세	생육 관리 강화
배	생산량 증가(전년 대비 +13.4%) → 공급 원활	계약재배 확대
수산물 (천일염·새우젓)	충분한 공급	대한민국 수산대전 통해 저렴하게 공급
수산물 (멸치액젓)	생산량 감소로 가격 강세	대체 소비 유도